



계성산우회보

제 47 호

- 발 행 인 : 김시우
- 편집국장 : 정인재
- 등반대장 : 류청웅
- 편집위원 : 김진걸
- 총 무 : 신대수

2007년 11월 23일(금)

교훈: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1

발행처:계성산우회보사 •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259-5 계성빌딩 811호 • 전화:(053)255-3900 FAX(053)256-4942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isung.or.kr

정해년 송년산행

경북 상주 갑장산(805.7m)



갑장산은 상주의 삼악(尙州三岳)이라 불리는 명산이다. 갑장산은 연악(淵岳)이요, 노음산(露陰山·728.5m)은 노악(露岳)이며, 천봉산(天鳳山·435.2m)은 석악(石岳)이다. 그중 갑장산이 으뜸이다.

남북으로 이어진 주능선을 경계로 상주 시내에 있는 서쪽은 산세가 완만하고, 낙동면의 동쪽은 수 십 길 절벽을 이루고 있다. 부드러운 능선이 펼쳐져 있지만, 정상부는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 다소 험한 곳도 있다. 상주 들판과 멀리 굽이쳐 흐르는 낙동강, 사방팔방이 고요함속의 진풍경의 그림이다. 곳곳에 암봉이 있지만 산길은 전혀 위험하지 않아 즐기는 산행이론 멋진 곳이다. 초입에는 경사가 좀 급하지만 30여분 오르면 자연휴양림으로 뿔뿔된다. 숲속의 군데군데 들어나는 바윗덩이들은 땀을 흘리며 쉬기도 좋거니와 좋은 전망처가 된다. 산행 중간식이나 식사를 하는 데도 전혀 부담이 없는 아늑한 산행길이다.

능선길따라 가다보면 경사가 좀있는 오르막길, 15여분 오르면 상산, 가슴이 확 터지는듯한 조망, 꼭들러 볼 만한 봉우리다. 상산을 뒤로하고 10분쯤 내려가면 너럭바위가 있는 문필봉. 고려 때 이 봉우리의 정기를 받아 많은 문필가가 나와 장원향이라고 불리기도 했단다. 이어 15여분 오르면 헬기장 이곳에서 점심을 즐기고 5분정도 오르면 갑장산정상, 정상석 옆에는 상주 문필가의 갑장산의 유래등 역사적인 설명을 정성스럽게 써 놓았다. 정상석과 돌탑, 또한 안테나탑이 어우러져 있는곳이 정상의 면모이다. 갑장산은 참나무, 떡갈나무, 층층나무, 산벚

나무 같은 활엽수가 많기 때문에 단풍도 아름답고, 12월 초순엔 단풍이 비록 끝물이라 해도 낙엽과 더불어 즐기기에 기가막힌 곳이다.

덕유산(1,614m)에서 소백산(1,421m)으로 굽이치는 백두대간 하늘금이 멀리 흐르고, 낙동강과 상주평야도 한눈에 보인다. 오솔길따라 한참 내려가면 전망 좋은 시루봉을 지나 도착한 백길바위. 이를 그대로 밟아 아래는 백길이나 되어보이는 까마득한 벼랑이다. 바위에 올라 갑장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암봉이 적나라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곳에서 우측으로 하산하면 갑장사를 둘러보고 용흥사로 하산하는 콘크리트길로 된 짧은 코스다. 기왕 내친김에 1.2석문을 통과하여 숲길따라 오솔길따라 한시간여 내려가면 용흥사에 이른다. 용흥사 절내력은 입구에 뽁뽁하게 적어 놓았는데 다 읽을려면 30분소요, 생략하고 주차장에 집합, 오늘 산행 끝. 시간은 오후 5시. 금일의 산행에 주의할 점은 낙엽이 쌓여 길이 안보이니 길바닥 조심!!!

금일 산행은 산행후 총회를 이곳 식당(통나무집)에서 회의겸 단합 대회를 가지니 각기의 동문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산행코스는 다음과 같다.

▷긴코스 : 용흥사주차장~387m봉~상산~문필봉~정상~나옹바위~백길바위~제2석문~제1석문~735m봉~용흥사 주차장을 돌아오는 원점 회귀코스(5시간소요)

▷짧은 코스 : 용흥사주차장~387m봉~상산~문필봉~정상~갑장사~주차장(4시간소요)

글 · 류청웅(48회 · 등반대장)

이 | 임 | 인 | 사

총동창 산우회장 김 시 우 (52회)

가쁜 숨소리에 힘겨워 뒤따라 오르는데, 힘내시라고, 회장님 하고 불러주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계성 총동창 산우회 회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운달산 금룡사에서, 저녁공양과 함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계성 총동창 산우회 회장에, 부족하고 내세울 것도 없는, 저에게 회장직을 맡기심에, 책임감과 함께.....

남장호회장님, 고 광병삼회장님, 김덕수회장님, 황성길회장님 과, 산우회 선배회원 후배회원의 땀 흘려 쌓으신 전통에, 누가 되지 않을까? 두려움과 긴장으로.... 아름다운 산과 계곡을 건강의 벗으로 삼아, 총동창 산우회 회원 여러분과 함께 심호흡을 하며 정담을 나누었는데, 벌써 이임인사를 드리게 되니.....

1월의 경주 남산에서의 시산제를 좀 더... 라는 의욕 때문에 답사를 4번이나 다녀오고, 소백산에서의 답사시 경험 미숙으로, 바람과 추위에 혼났을때의, 대장님의 경험담과, 따뜻한 격려의 말씀, 사랑도 칠현봉 산행에서의,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차량 5대의 대이동과, 유람선에서의 승선인원 제한으로, 항상 끈끈한 우정으로 도와주는 동기생들께 산행 참여를 못하게 하여, 동기생들에게 죄스러움과, 또 유람선 갑판에서의, 산행에 참여한 220여 회원 모두가 도와 함께 목이 터져라 불러본 교가.

팔공산, 파계사, 일원에서 등반대회 시, 대회에 참가한 400 회원이 대회규정을 잘 준수하여, 선의의 경쟁으로, 유종의 미를 남기심과, 지리산 피아골 산행시, 엄청난 폭우로 입산통제됨에, 등반대장팀의 순발력으로 문경세재에서의 산행과, 또 땅 끝 마을 달마산 산행시, 긴 거리의 차량 이동으로 무료함을, 총무의 좋은 비디오 준비하심과, 재천 월악산자락 북바위봉에서, 재경 산우회와 전국 합동 등반대회시, 참가한 300여 회원여러분의 모범된 산행으로..... 재경 산우회로 부터의 아름다운 칭찬과 함께,..... 지나간 모두가,....., 총동창 산우회 회원과, 가족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집행부에 잘 따라주심에, 오늘, 이렇게 회원여러분과 가족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월 정기산행의 많은 참여를 위하여, 수고하신 각 기별 회장님과, 회원여러분,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을 위하여, 감사하느라고 고생하신 등반대장팀, 산우회보의 발간을 위하여, 동분서주 뛰어다니 편집국장님과 편집위원, 무거운 배낭과 비디오 촬영에 바쁜 홍보부장, 체육부장. 인생에서의, 사회생활이 제일 왕성한 시기에, 총동창 산우회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신 총무. 특히 대선배이신, 서정원 선생님과, 채근수 고문님, 매월 참가하심과 좋은 말씀에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이 담긴 따뜻한 도시락과, 미소로? 문밖 배웅한 WIFE에게 고맙다는 인사와....

계성 총동창 산우회 회원! 가족여러분!

2008년에 새 집행부와, 또, 금년 처음 참가한 76회 산우회원과, 선 후배간의 존경과 사랑으로, 전국의 명산을 산행하며, 1호차에서는 祈禱로? 2,3호차에서는 酒와 酎의 讚頌으로.... 계성 총동창산우회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갑니다.

계성 총동창 산우회원! 가족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평안함과, 하느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최고의 정보와 시대의식을 담은 깨어있는 지식인의 종합교양지

新東亞 | 주간동아 | 과학동아 | 어린이 과학동아 | 여성동아

정기구독신청 및 문의 (053)253-7663~4

東亞日報出版 大邱 · 慶北支社 支社長 尹 月 普 (52회)

산행기

절정을 이룬 피아골 단풍과 함께 한 행복한 산행

이번 산행은 계성 산우회와 함께하는 두 번째 산행이며, 또한 지리산도 두 번째 올라가는 셈(첫 번째는 대학시절 백무동에서 천왕봉으로 올라갔다 내려옴)이다. 단풍으로 유명하다는 피아골(지리산 10경 중 하나라고 카던데) 산행인지라 출발 며칠 전부터 마지막 가을을 장식하는 단풍을 맘껏 즐기고 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다가오는 일요일을 기다렸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마치고 모교에 도착하니 6시 50분. 동기 정성대는 아직 오직 앉았고, 버스에 올라타 자리를 잡았다. 오랜만에 만난 71회 박용상 형과 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잠시 후 성대도 도착하고 버스는 지리산을 향해 출발하였다. 다행히 날씨는 너무나도 좋았다. "이번 산행코스는 처음인데, 사진도 많이 찍고 와야지." 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런데 중간 휴게소에 신대수 선배님을 통해 산행기 원고 청탁(?)을 받고는 순간 걱정이 되었다.

이런 장르의 글은 머리털 빠지고 처음 써보게 되는지라. 그동안 비슷한 성격의 글을 부탁받은 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거절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럴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나? 강재수가 드디어 작가로 데뷔하게 되었으니(뭐, 퇴짜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전국의 단풍 관광버스가 모두 이곳에 모인 것일까? 버스는 성삼재 주차장 훨씬 아래부터 정체되기 시작하였다. 수많은 사람과 차량으로 인해 더디게 주차장 부근까지 도착, 우리들을 내려놓은 버스는 반대쪽 하산 지역으로 바로 이동하였다. 오전 11시 30분경에 드디어 산행을 시작하였다. 수능고사를 앞둔 팔공산 갓바위를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뭘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은가? 다들 올해의 마지막 지리산 단풍을 맞보고자 왔을 것이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나뭇잎이 거의 떨어지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아 있어 가을과 겨울의 길목에 와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한 명뿐인 동기 성대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한발 한발 오르다 보니 어느덧 노고단 대피소에 도착하였다.

이정표를 확인하고 돌길을 따라 노고단 고개에 올라와 보니 높고 파란 가을하늘에 새털구름이 펼쳐져 있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 아닐 수 없었다. 운 좋게도 오늘은 평소 생태계 보전을 위해 폐쇄되어 있던 노고단 정상을 개방하고 있었다.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기에 잘 만들어 놓은 나무계단을 밟아서 노고단 정상까지 올라갔다.

노고단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광은 노고단 고개에서 바로 보았던 것과는 또 다른 맛과 멋이 있었다. 저 멀리 섬진강이 시원스럽게 한눈에 들어왔으며, 노고단 정상 맑은 공기는 내 몸과 마음을 순수하게 정화시켰다. 지금의 기분을 영원히 기억시키고자 정상 주변의 경치를 가져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음 포인트인 피아골 삼거리를 향해 이동했다. 11월 초순의 지리산은 이미 겨울의 문턱에 거의 도달한 것 같았다.

지리산 주능선은 이미 앙상한 나뭇가지만 있어 황량한 느낌이 들었지만 피아골의 붉은 피를 토하고 있을 불꽃 단풍의 기대감 때문에 아무렇지 않았다. 등산로는 젖어있었고, 주변에는 간간히 눈인지 얼음인지 그 비슷한 것도 보였다. 돌길과 흙길을 밟아 내려가는데 주의를 하지 않으면 미끄러져 넘어질 것만 같았다.



▲ 피아골 단풍

돼지편전 부근에서 많은 사람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고, 우리들도 적당한 자리를 잡고 준비해온 점심을 꺼내 식사를 하였다. 간단하게 식사를 마치고 다시 출발, 피아골 삼거리에 도착하였다. 이제부터는 피아골 산장을 다음 목적지로 정하고 본격적으로 하산 길에 나섰다. 하산 길도 만원상태이었다.

수많은 등산객들이 한 줄로 줄지어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내려가고 있었다. 지금이 한밤중이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손전등을 들고 있었더라면 그리고 때마침 인공위성이 이 지역을 관찰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정확한 등산로가 그려지지 않았을까. 반대편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다렸다가 피해주고 다시 내려가곤 했었다.

피아골에서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와 얼굴에 맺힌 땀방울이 애처롭게 보였다. 다행히도 우리는 이 길을 내려가고 있었다. 원래 하산 시 내 스타일은 거의 뛰어 내려가는 식인데, 좁은 등산로에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 오늘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런데 내려가다 보니 사람들이 없어도 뛰어 내려갈 만한 길은 아니었다.

피아골 삼거리부터 산장까지는 경사가 심한 내리막길로 여간 편치 않은 구간이었다. 장시간 쉬지 않고 산행을 하다 보니 약간씩 내딛는 발이 떨리기 시작했다. 산장에 거의 다다를 무렵 불로고 철다리를 지나서부터는 계곡 물소리와 함께 단풍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처음 보이기 시작한 지리산 피아골 단풍은 그리 감동적이지 못했다. 사실 필자는 지난 금요일(11월 2일) 회사에서 단체로 주왕산 단풍 관광을 다녀왔었다. 그날은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밝고 따뜻한 햇빛이 계속 비추주었었다. 좋은 사진은 좋은 빛이 있어야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특히나 단풍 모습은 햇살에 반사되거나 투과될 때 제 빛깔을 볼 수 있다. 그날 주왕산 단풍은 햇살을 받아 제 빛깔을 맘껏 뽐내었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의 피아골 날씨는 오전과 달랐다.

하늘을 쳐다보니 약간은 흐린 듯 했었

고, 깊은 계곡이라서 그런지 더욱더 계곡 곳곳에는 햇빛이 도달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며칠 전 보고 온 주왕산 단풍 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계속 하산할수록 온 시야에 가득한 만산홍엽의 절정 속에 피아골 단풍에 점점 매료되어 갔다.

어느덧 피아골 산장에 도착하였다. 원래는 이곳에서 차나 한 잔 하면서 휴식을 취하기로 성대와 계획했었는데 산장 주변 분위기가 그렇질 못했다. 산장에는 수많은 등산객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마치 시장통속 같아 보였다. 그래서 계획을 변경하여 그냥 지나쳐서 계속 하산하기로 하였다.

피아골 골짜기를 따라 쪽 연결되어 있는 등산로 주변은 단풍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다. 계곡의 소와 담의 하얀 포말과 함께 곁들여지는 단풍은 그야말로 지리산 10경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황홀했었다. 여기에서가 적절한 햇살만 더했다더라면 그 풍경에 마치 술에 취한 듯 몸을 가누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때 묻지 않은 원시를 간직한 채 그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 구계포 계곡을 지나치고부터는 몸과 마음이 조금씩 지치기 시작하였다.

불개 타들어가는 산자락에 물도 붉게 물들고 이를 보는 사람의 얼굴도 붉게 물들어 삼홍(三紅)이라 일컫는 삼홍소에서 피아골의 단풍은 최고 절정에 도달한 듯 보였다. 나중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연곡사 쪽에서 시작하여 피아골 산장까지만 올라와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솔길 같은 등산로를 따라 쉽 없이 내려오다 보니 단풍축제 행사가 열렸던 것으로 보이는 표고막터에 도달하였다. 어느덧 해는 보이지 않고 조금씩 어둠이 내려오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이 보였다. 표고막터부터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길이 나있어서 성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내려갈 수 있었다.

아침에 등산하기 전에 하산지역은 단풍행사 관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로 인해 북적거릴 것이라 들었는데, 우리가 늦게 하산한 탓인지 단풍행사는 이미 모두 종료된 듯 직전마을 상가로 내려오는 동

안 노고단 쪽에서 하산한 사람들만 있을 뿐 전혀 복잡하지 않았다. 드디어 지루한 하산길이 종료된 듯 저 멀리서 상가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상가 안을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선배님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하산주를 한잔씩 드시고 계셨다. 아니 언제 이렇게 빨리 내려오셨단 말인가? 나름대로 빨리 내려온다고 내려왔었는데 역시 산우회 짬밥(?)은 무시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술을 좋아하는 성대의 손에 이끌려 함께 자리를 잡고 앉으니 선배님께서 술을 주셨고, 안 그래도 술에 약한 필자는 빈속에 들어온 한 잔의 술로 인해 금방 취기가 올랐다.

연곡사에 이를 때까지 이런 술자리를 세 번 했었다. 술 좋아하는 성대야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필자는 약간 육체적으로 힘이 들었다. 그렇지만 긴 산행 끝에 마시는 술이었기에 그 기분만은 좋았다.

연곡사까지 내려오니 이미 주변은 어둑해졌다. 지리산 제일의 거찰이었다는 연곡사이였기에 한번 둘러보고 가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어서 조금은 아쉬웠었다. 내동리까지 내려와보니 벌써 1호차는 대구를 향해 출발했고, 성대와 함께 2호차에 지친 몸을 싣고 대구로 향했다.

6시간의 긴 산행을 해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오랜만에 장시간의 산행을 한 탓인지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비몽사몽 정신이 없었다. 오늘 하루는 오랜만에 장시간 산행으로 힘은 들었지만, 동기와 선배님들과 피아골 단풍의 절정을 함께 할 수 있었던 행복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이런 행복한 만남이 계속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의 산행기를 맺고자 한다.



글 · 강재수(73회)



노후자금 마련 10계명

다가오는 노령화 사회, 주어지는 삶이 아닌 선택하는 삶을 위하여

우 리나라는 평균수명과 건강수명 간의 간격이 10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수명은 늘어나지만 다른 사람의 수발을 받으면서 생존하는 기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당당하게 늙기 위해서는 'I will do, I can do, Let's do.'-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노령화 사회에서 주어지는 삶이 아닌 선택하는 삶을 위하여 종자돈을 만듭니다.

첫째, 빨리 시작할 수록 유리하다.

최근들어 도시가계의 평균을 보면 수입창출 가능 기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평균 수명은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직장인의 경우 퇴직을 하면 재취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입이 있을 때 노후생활을 준비해 나가야 그나마 품위 있게 은퇴후의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40대 부터는 본격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적립식펀드나 변액연금 등 노후 안정적 생활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후준비는 10년마다 그 부담이 배로 늘어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은퇴시점에서 필요한 최소자금을 먼저 따져보라.

40대의 경우 노후자금 마련은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해야 하는가를 먼저 따져보고 이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들을 또한 찾아나가야 한다. 은퇴후 필요한 자금은 은퇴전 생활비의 70%이상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간단하게 계산하여 제시한다면 부부가 60세부터 평균수명까지 매월 200만원씩 지출을 예상한다면 현재 가치 기준으로 4억8천만원, 3백만원씩 지출을 예상한다면 7억2천만원 정도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이는 현재의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60세 까지 남은 기간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계산한다면 이러한 필요자금의 규모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수입창출이 가능한 기간을 고려하여 매년 저축목표를 정한 후 실질수익률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후자금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분산투자로 투자의 안정성과 평균수익률 증대를 도모하라.

많은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에 끌리어 투자보다는 투기를 즐긴다. 그러나 이러한 탐욕은 성공확률이 매우 낮아 꿈에 불과하거나 오히려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투자할 자금이 어느정도 되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어느 한곳에 투자하기 보다는 금융상품, 주식 또는 주식형 간접투자상품, 부동산 등에 그리고 투자가간도 장·단기를 적절히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넷째, 노후자금 마련은 연금상품과 적립식펀드를 이용하라.

노후자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절세효과와 수익성을 적절히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투자를 계획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이미 모아둔 돈이 있거나 은퇴시까지 저축이 가능한 경우 안정적으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면서 매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금상품에 노후필요자금의 60%를 투자하고 나머지 40%는 장기투자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 안정성도 높일 수 있도록 투자를 해 나간다면 노후자금 마련을 보다 효율적으로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연금상품과 변액종신연금에 투자하여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본생활비 정도를 종신토록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자금은 국내 우량주 펀드 및 장기적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브릭스 지역 투자펀드 또는 아시아지역 투자펀드 중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펀드에 적립식으로 투자해 가도록 한다면 노후 생활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노후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보장성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 두라.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있으나 건강하게 사는 나이인 건강수명은 65세정도로 늘어나는 것이 우리나라 고령화의 문제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노후준비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보장성보험의 가입이다. 병원비의 경우 60대 이후에 부담하는 금액이 60대 이전에 부담하는 금액보다 3배정도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더 늦기전에 보장성 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료 부담은 수입의 5~8%정도가 적절하며, 보험은 저축의 수단이라 아니라 위험을 담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만기에 원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기 보다는 순수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의 원래 기능만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여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대부분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을 배당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을 보장해 주지 않는 위험이 있다. 남들이 높은 수익을 냈다고 하여 그 수익에 끌리어 위험자산에 투자를 한 후 노심초사 하기 보다는 투자하기전에 본인의 투자성향을 체크해 보고 이에 맞는 투자상품을 고르는 것이 투자 후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음은 물론 투자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일곱째, 경기의 흐름 등 시장의 변화를 이용하라.

변화를 아는 만큼 성공확률은 높아진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상황의 변화가 큰 경우에는 시장의 변화를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산관리에 있어 이제는 시장의 흐름을 아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금리나 부동산, 주식시장 등의 흐름을 관심 있게 접해나가는 것이 적절한 투자처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시장의 흐름을 이용한 투자전략만이 그동안 모아둔 재산을 지켜 나갈 수 있음은 물론 적절히 불려 나갈 수 있을 것이며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적절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직접투자보다는 간접투자 방법을 이용하라.

주식은 투자대상 자산중에 가장 등락 폭이 큰 자산 중 하나이다. 따라서 단기투자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해야 할 것이므로 개인 투자자의 경우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주식투자의 삶이 있는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워런 버핏

도 내집을 마련한 후 주식 투자를 시작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주식투자로 부자가 된 경우는 주식투자자의 1%, 부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겨우 원금이라도 지킨 투자자는 전체 개인투자자의 10%가 채 되지 못한다고 한다. 이는 시장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투자자의 투자성공 열망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투자자는 본전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개인의 경우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정보수집력이나 분석능력, 매매시기의 선택 등에서 뒤지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따라서 주식투자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직접투자보다는 상품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간접투자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투자의 성공확률을 높여 나가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홉째, 목표수익률을 정한 후 투자에 임하라.

투자상품은 실적배당상품이므로 수익률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전에 목표수익률을 정하고 목표수익률에 도달 했을 때 분할 환매나 갈아타는 방식으로 투자관리를 해 나가야 투자로 인한 실익을 챙겨나갈 수 있다.

열번째, 은퇴후 부부가 즐겨나갈 수 있는 공동의 취미생활 개발을 위해 투자해 나가라.

은퇴후 적절한 시간활용과 남은 여생의 보람있는 마무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나가야 할 비 재무적 요인중 하나는 바로 적절한 취미활동과 사회봉사가 가능한 skill을 습득해 나가는 것이다. 부부가 공동의 취미를 갖고 여가활용을 하면서 인생에 축적된 경험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일도 노년에 삶의 질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글 · 최철암(61회)
우리은행 대구경북본부장

등산장비 전문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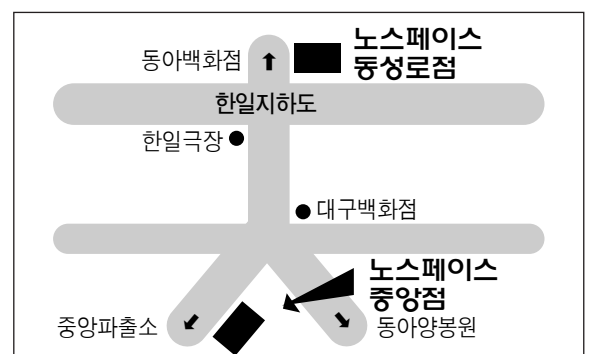
노스페이스 중앙점

대표 조 홍 채 (64회)

H.P. 017-504-2277

- 중 앙 점 : 대구시 중구 동성로 2가 150-16 (대백⇄중앙파출소) / Tel. (053)255-5511
- 동성로점 : 대구시 중구 동성로 2가 36번지 (한일극장 건너편) / Tel. (053)421-4433 Fax.424-7361
- 구 미 점 : 구미시 원평2동 1008-33 (구미 국민은행 건너편) / Tel. (054)456-6900~1

계성산우회원 특별대우!!



11월 제94차 정기산행은 지리산 피아골에서 가져

지난 11월4일,계성총동창산우회 제94차 정기산행은 지리산 피아골에서 실시되었다. 총 3대의 버스에 약 112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산행은 가을 산행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지리산 피아골을 탐방하는 코스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산행은 초입인 성삼재로 오르는 길에 수 많은 산행객과 차량들로 인해 교통정체를 빚어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긴 약 11시30분경이 되어서야 산행을 시작할 수 있었다.

너무 많은 인파 때문에 몸풀기나 교가 제창등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각 기별로 삼삼오오 산행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성삼재 들머리로부터 노고단대피소를 지나 지리산 주능선으로 들어서는 코스로 진행하였다. 마음 급한 회원들은 외길 등산길 인파를 헤치고 진행하기에 무척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리산이라는 거대한 산이 주는 경관에 지루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노고단 대피소로부터 피아골 삼거리까지의 능선은 고도차가 거의 없는 관계로 아주 편안한 산행이 되었지만, 피아골 삼거리로부터 피아골 대피소를 지나 연곡사 방향으로 향하는 피아골은 가파른 내림길에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유난히 아름답다는 피아골의 단풍은 언제 다 말라 버렸는지 붉디 붉은색의 단풍은 간간히 마주칠 뿐이었다.

오후 5시반까지 하산하여 버스에 탑승하기로 사전 공지되었으나... 아뿔사! 연곡사에 도착하니 도로는 온통 차량들로 꽉차 오도가도 못하는 형국에 난감함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조금 예측(?)하였기에 우리가 타고온 버스는 주차장이 아닌 아랫마을 어귀에 대기토록 하였으나 그마저도 주차불가의 상황이 되어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약 6시간 이상의 산행에 피곤함을 느끼던터라 도로를 걸어서 버스까지 몇km나

이동한다는게 아마 고통이었으리라 짐작되었다.

하여간 천신만고 끝에 하산주의 즐거움(?)도 제대로 맛 보지 못하고 허겁지겁 버스에 올라타고 대구를 향해 출발하기에 바빠 여러 회원님들간에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함이 못내 서운했다.

대구를 향해 오는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저녁식사등을 해결하고 출발지인 모교에 도착하니 시각은 어느덧 오후 11시!

몸은 피곤하고 어수선하고 분주한 산행이었지만 항상 동문들과의 산행이라 더욱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산행도 아무런 사고 없이 치러짐에 여러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39회 : 서정원 부부 ▷44회 : 채근수 ▷48회 : 변학준 부부, 이도의, 손성구 ▷49회 : 최 준, 박노권, 이종호, 강일영 부부 ▷51회 : 허종철, 황성길, 박동고, 박재봉, 권영호 부부, 장무웅, 김병주, 이동희, 김완식, 김명숙 ▷52회 : 김시우, 서정환 부부, 김기선 부부, 김신웅, 김재태, 이종덕 부부, 최상철 부부, 송방호, 정하룡, 신개식, 서창국 ▷55회 : 정인재, 정도영 부부 ▷56회 : 김종철 ▷60회 : 김경동, 김영호, 김인중 부부, 박영태, 백기홍 부부, 이인직, 정익표, 정인호, 주이광, 진동현 부부, 최명호 ▷61회 : 이승엽 부부, 유진, 신문탁, 성연복, 김성수 부부, 임유상 부부, 예병국 ▷62회 : 권영보, 송근배, 신해웅, 방인철 ▷63회 : 김재룡 형제, 고수환 부부, 이일우 부부, 장종국 부부, 정국열 부부, 이세탁 부부, 이성률, 이탁, 이태훈, 김형국, 이진호 부인 ▷65회 : 김영문, 홍동석, 김진걸 ▷69회 : 김도균, 신승철, 장원경, 안재갑, 우종식 ▷70회 : 서태호, 김현호, 류한엽, 신대수 ▷71회 : 송건호, 박용상, 석준수, 추쌍엽 부자 ▷73회 : 정성대, 강재수 (총 112명 참석)

글 · 신대수(70회 · 총무)

2007년 11월 총동창산우회 찬조 및 협찬 내역

계성산우회의 발전 및 행사 지원에 협찬 및 찬조해 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성산우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회원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찬조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임원 회비 / 찬조금 현황

▷서정원(39회) 10만원 ▷남장호(42회) 10만원 ▷채근수(44회) 20만원 ▷류청웅(48회) 10만원 ▷박주영(50회) 30만원 ▷김덕수(50회) 30만원 ▷황성길(51회) 30만원 ▷김시우(52회) 200만원 ▷김기선(52회) 50만원 ▷박순우(52회) 50만원 ▷문진철(52회) 30만원 ▷손원식(52회) 30만원 ▷이종덕(52회) 30만원 ▷김우영(55회) 30만원 ▷박영태(60회) 30만원 ▷김성수(61회) 40만원 ▷이일우(63회) 30만원 ▷서태교(65회) 30만원

▶광고협찬내역

▷남승무(50회) 10만원 ▷한진호(50회) 10만원 ▷52회 산우회 10만원 ▷김동섭(52회) 10만원 ▷윤월보(52회) 10만원 ▷서창국(52회) 20만원 ▷차경열(52회) 산우회보 봉투 3천부(22만5천원) ▷서은수(55회) 50만원 ▷구본학(55회) 10만원 ▷김진도(55회) 10만원 ▷정육표(56회) 10만원 ▷최돈문(56회) 20만원 ▷백기홍(60회) 10만원 ▷정수영(61회) 산우회보 봉투 1만부(73만원) ▷김현준(63회) 10만원 ▷조홍채(64회) 50만원 ▷김진걸(65회) 10만원 ▷65회 산우회 10만원 ▷67회 산우회 45만원 ▷서희동(68회) 10만원 ▷69회 산우회 10만원 (2006년 12월~2007년 11월)

▶행사 찬조내역

▷강일영(48회) 10만원 ▷남기진(51회) 백설기 80인분 ▷51회 산우회 10만원 ▷김시우(52회) 캔맥주 10Box ▷서정환(52회) 신년상견례시 식대(50만원 상당) ▷55회 산우회 10만원 ▷이종열(55회) 여름행사지원 ▷60회 산우회 20만원 ▷유진(61회) 10만원 ▷63회 산우회 10만원 ▷65회 산우회 20만원 ▷69회 산우회 7만원 ▷김우철(70회) 30만원 ▷재경 산우회 10만원 ▷김명숙(여성부회장) 합동산행지원

집행부 소식

❖ 11월 14일 차기산행지인 상주 갑장산 답사를 류청웅 대장, 변학준(48회), 김

선동(54회), 김성수(61회) 부회장, 추쌍엽(71회) 회원이 다녀왔다.

❖ 11월 20일 편집회의 겸 차기산행준비 및 총회준비를 위한 모임을 총동창회 사무실에서 가졌다.

12월 정기산행 안내

- ▶일 시 : 2007년 12월 2일(日) **08:00** (시간 지켜 주세요.)
- ▶장 소 : 모교 정문 앞 ▶회 비 : 1만5천원(가족1만원)
- ▶준비물 : 도시락, 식수, 과일, 간식류, 여분의 옷가지, 겨울기본장비 외
- ▶문 의 : 신대수(70회) H.P : 011-251-9613

《송년기획 산행안내》

- * 산 행 지 : 울릉도 성인봉
- * 언 제 : 2007년 12월 29일~31일(토, 일, 월) 2박3일
- * 회 비 : 20만원 내외(인원수에 따라)
- * 문 의 : 류청웅(48회) H.P : 011-811-9797

치질수술전문

류 외과의원

“당일수술 당일퇴원부터
2박3일 입원까지 환자선택가능”

원 장 류 성 훈 (67회)

경북 구미시 형곡동 151-9

형곡동 풍림아파트네거리(형곡 기업은행 맞은편)

TEL : (054)451-7775(치질치료), (054)456-4988

H.P : 011-811-5600

대장항문전문 | 치질수술 | 치열수술 | 치루수술 | 항문농양수술